

아이들과 교육

0세-19세 인구
비중 **19%**

2022. 2월 기준



6 유치원
177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20.7**



초등학생
1인당
도서 대출 자료수 **3.7**



전문가 칼럼 제6호
과천시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10.4**



관내
평균
통학시간 **14.3분**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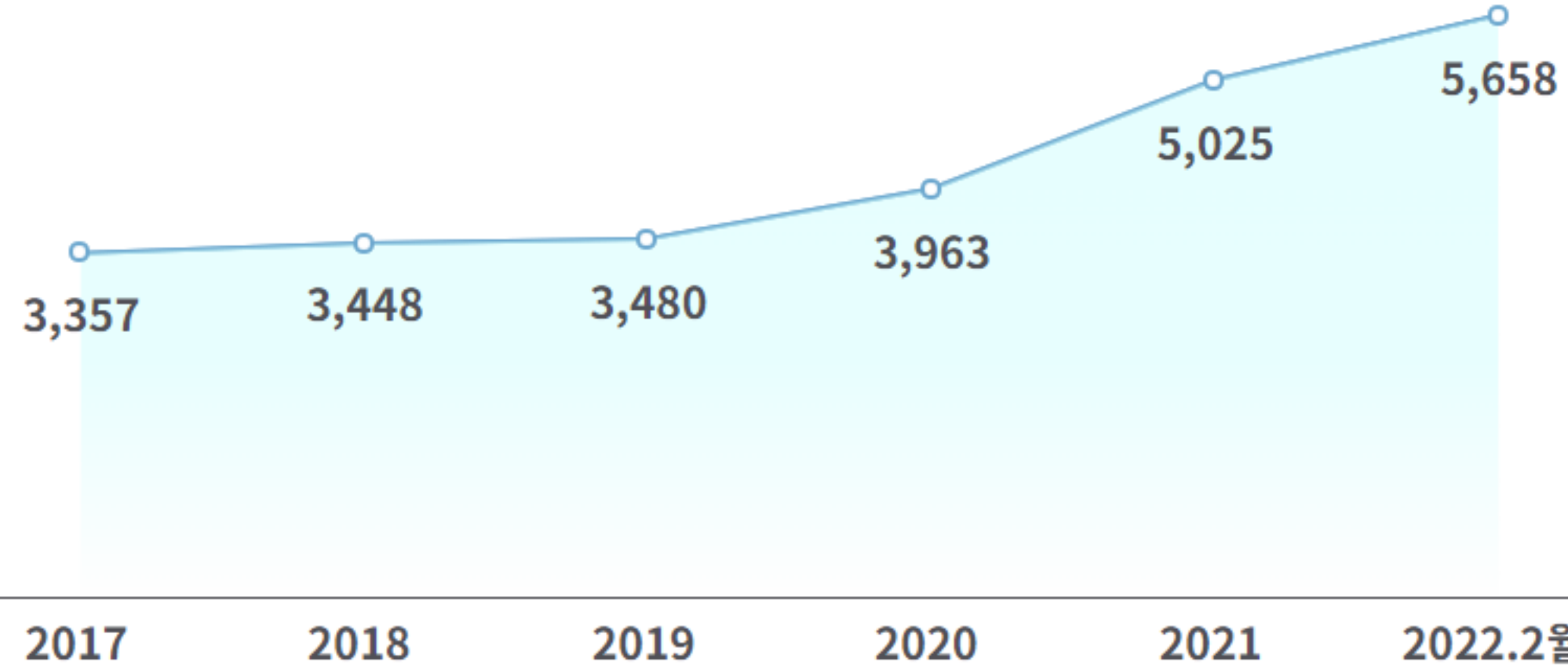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2. 2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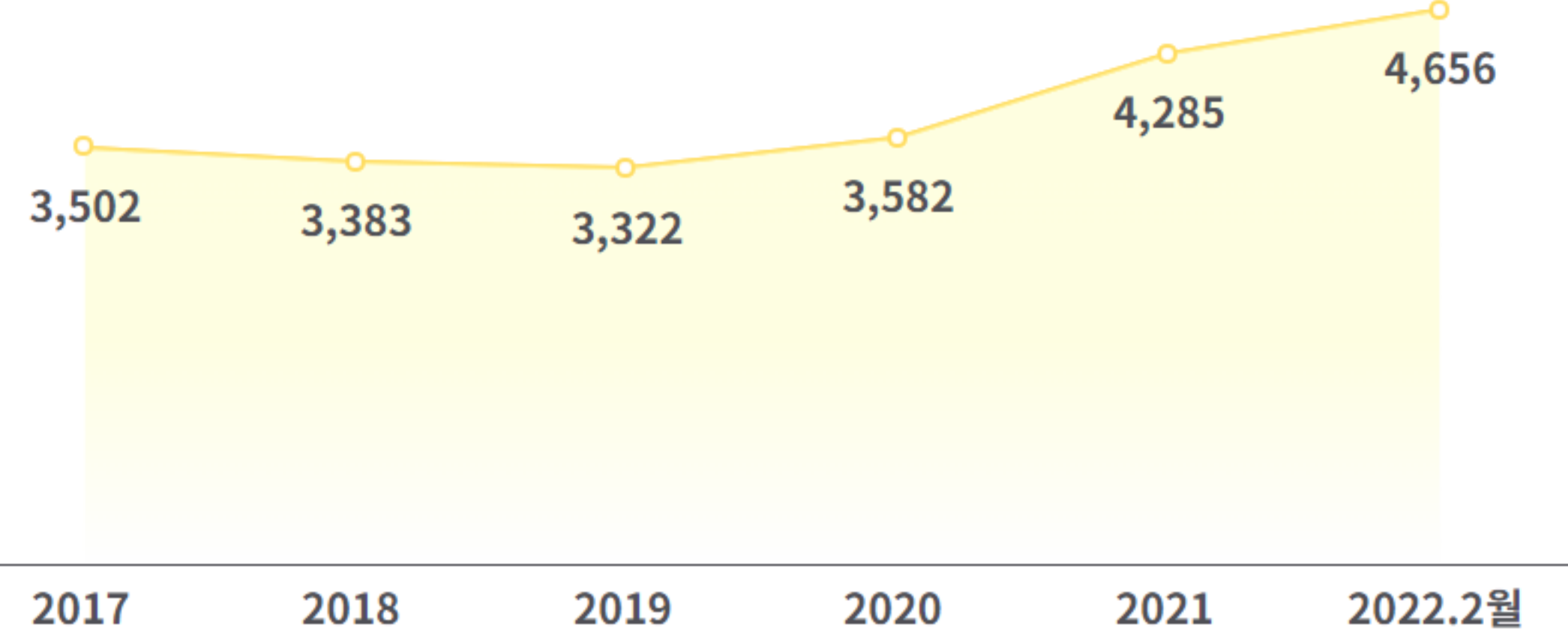
미취학(0세-7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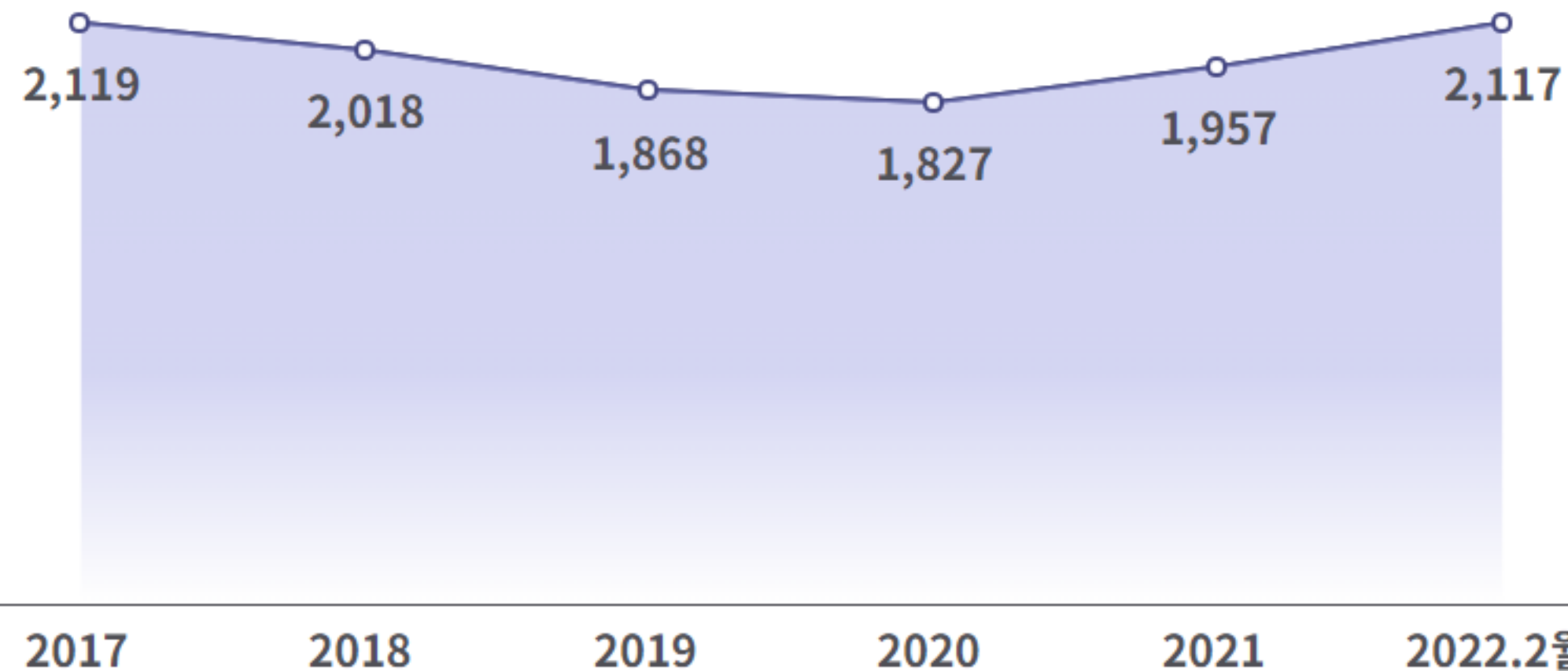
초등학생(8세-13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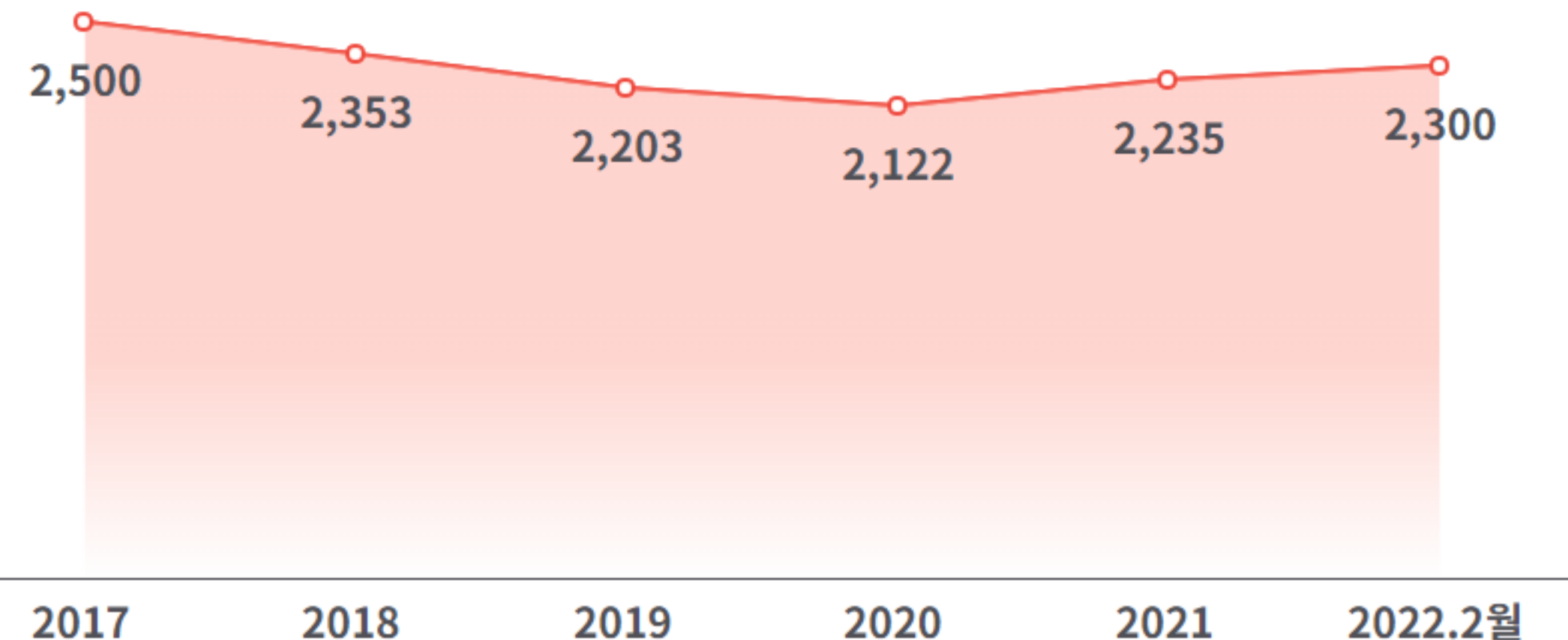
중학생(14세-16세)

(단위: 명)



고등학생(17세-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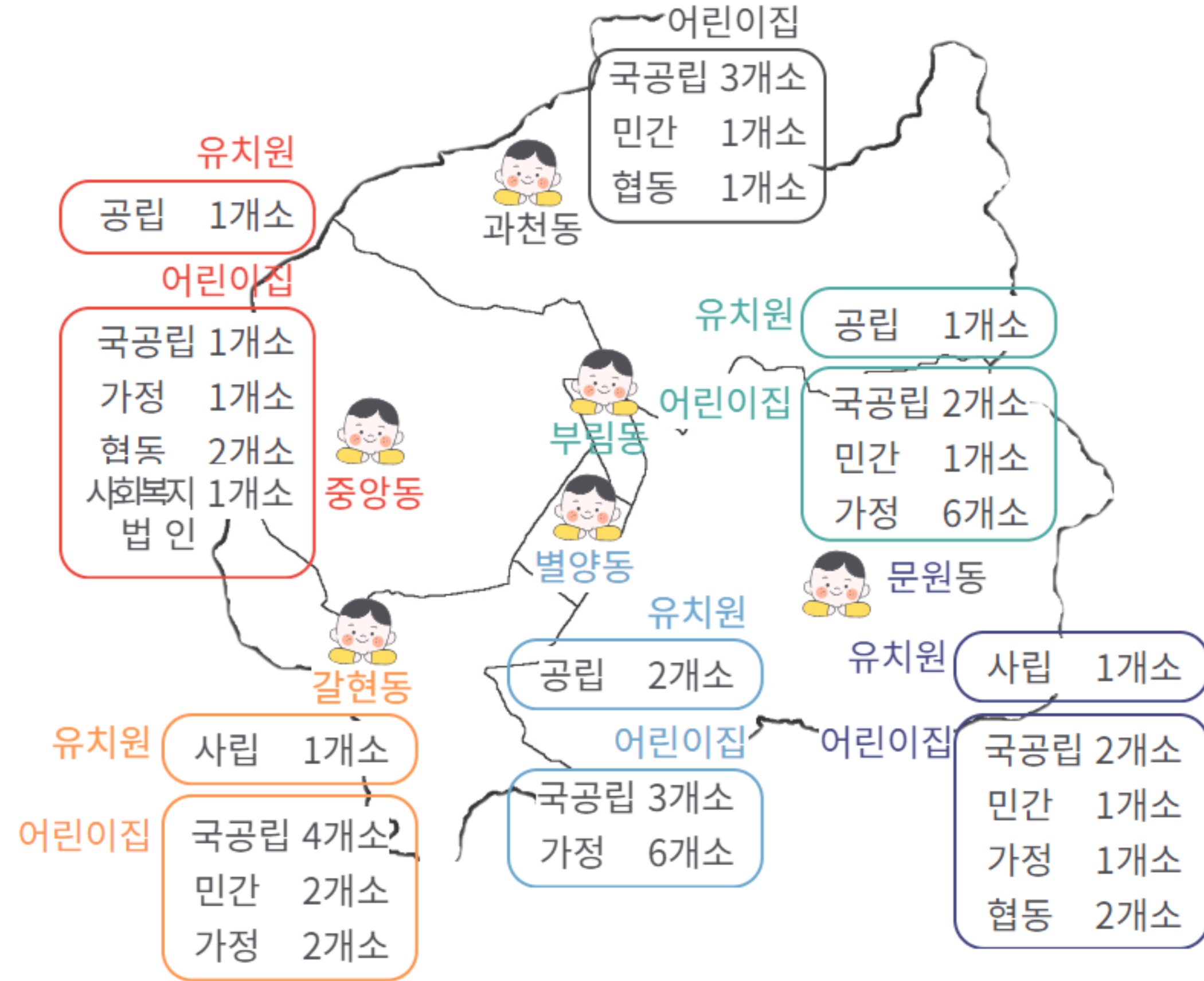
(단위: 명)



보육시설 현황

출처: 과천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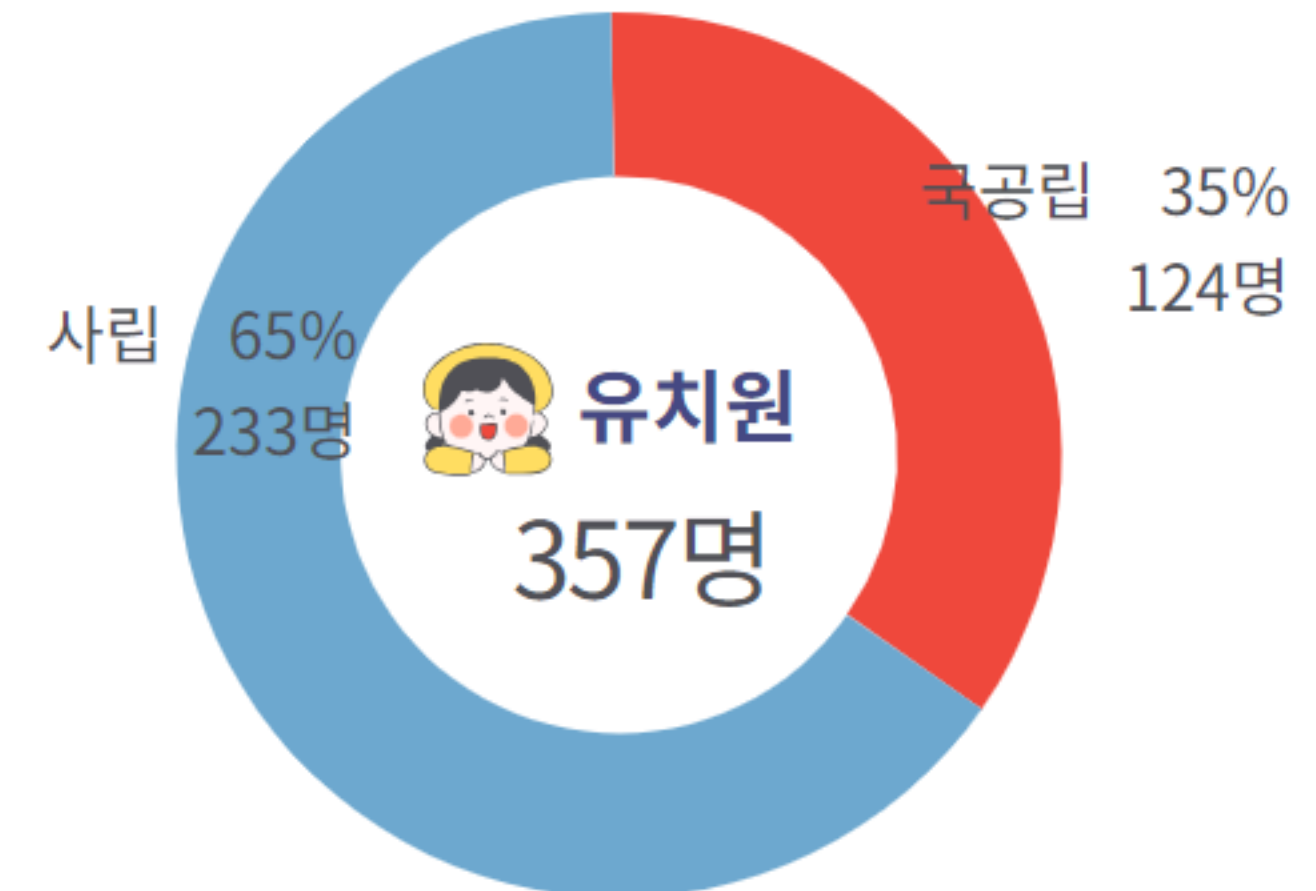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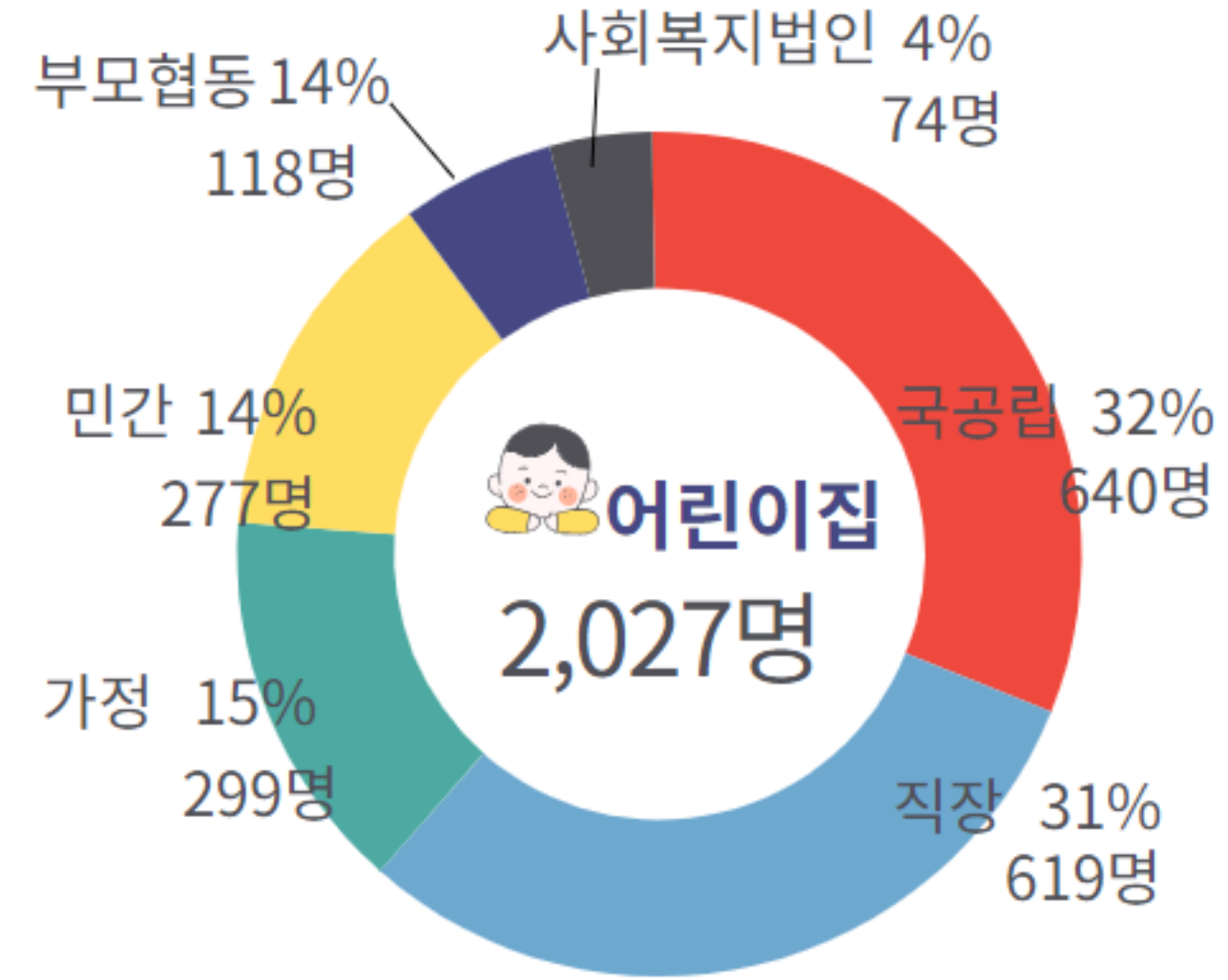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지도 출처: <https://blog.naver.com/cooper8413/222185838704>

출처: 2021년 경기도 보육통계 (2020년 기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수




초등학교 현황


출처: 학교알리미 (2021. 5월기준)

과천초등학교

25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9개

 학생수: 724명

21.3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34명

관문초등학교

23.4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3개

 학생수: 538명

19.9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27명

청계초등학교

22.3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8개

 학생수: 624명

18.9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33명

문원초등학교

27.6명
학급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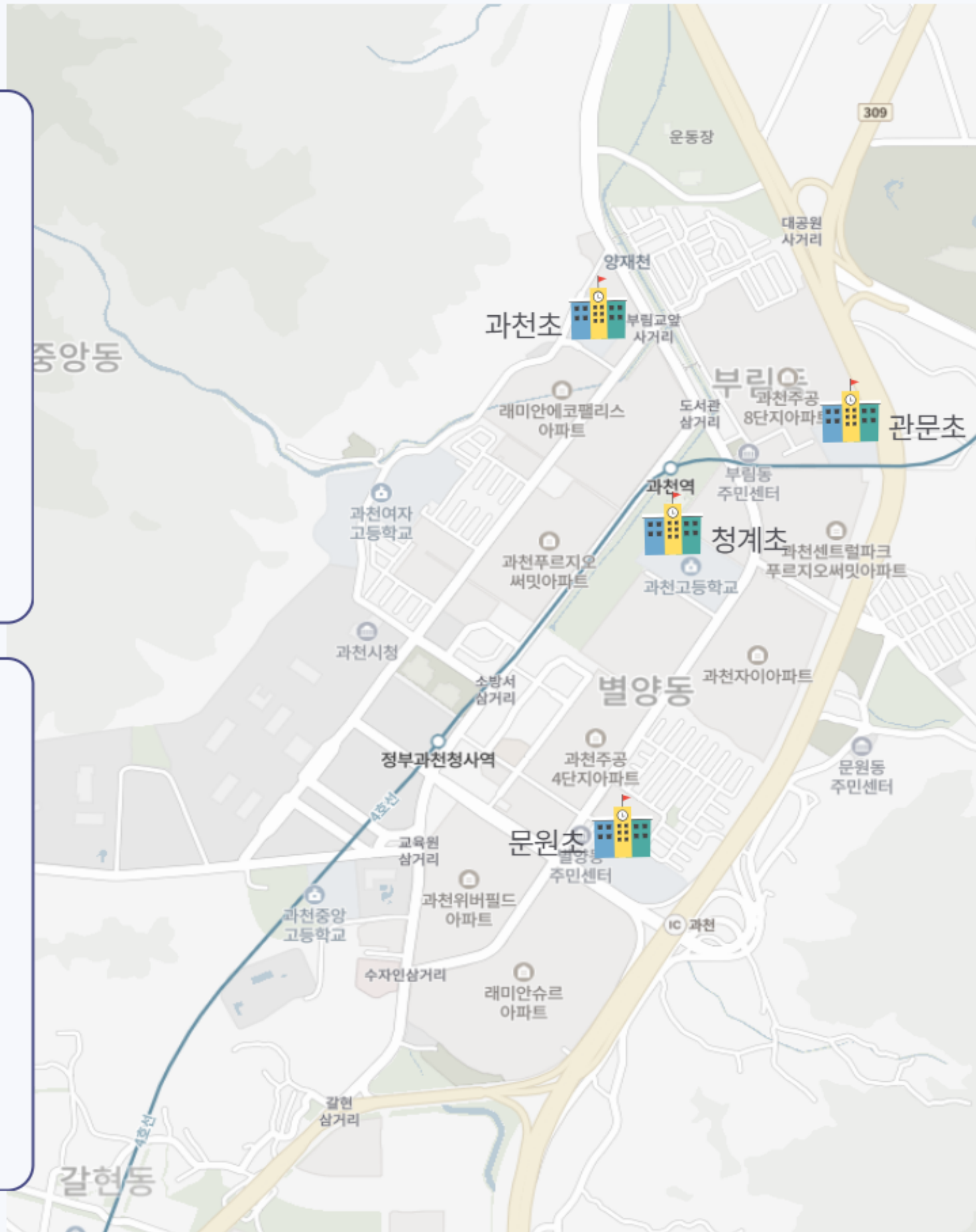
 학급수: 60개

 학생수: 1,657명

21.8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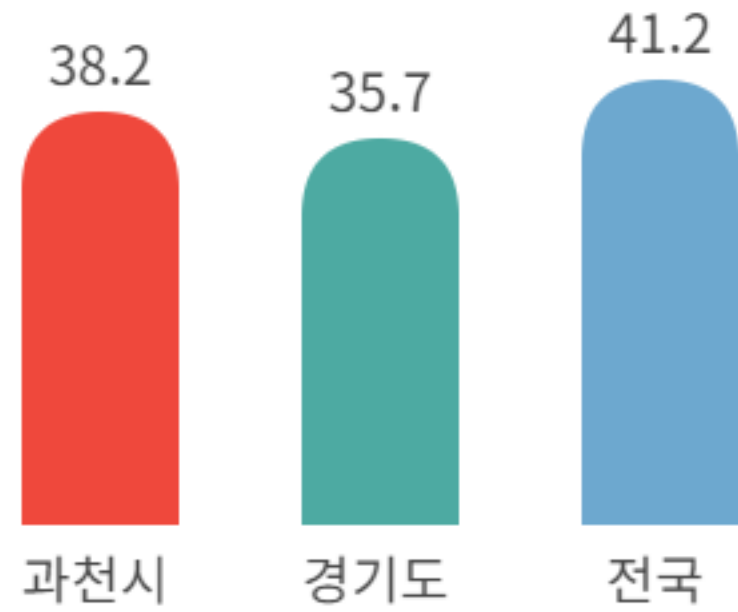
지도출처: 네이버

초등학교별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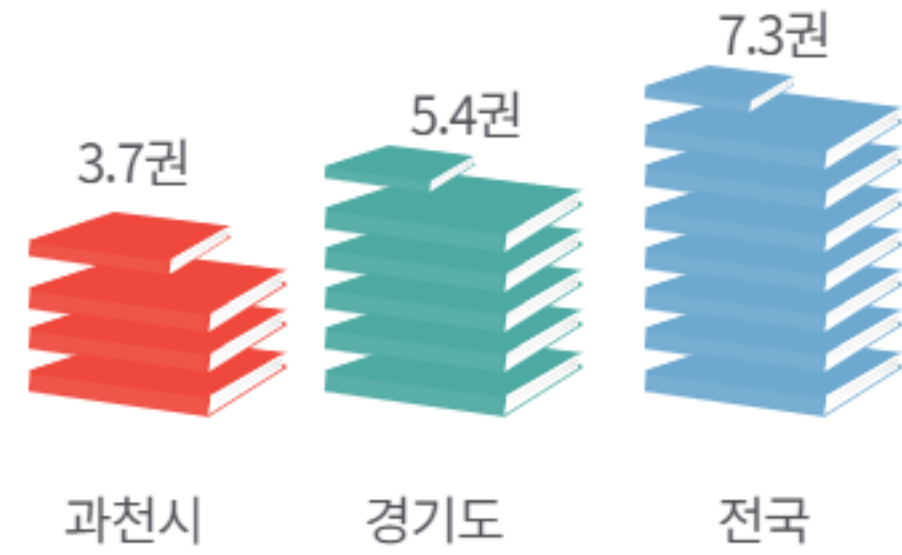
출처: 학교알리미 (2021. 5월기준)

1인당 장서수

단위: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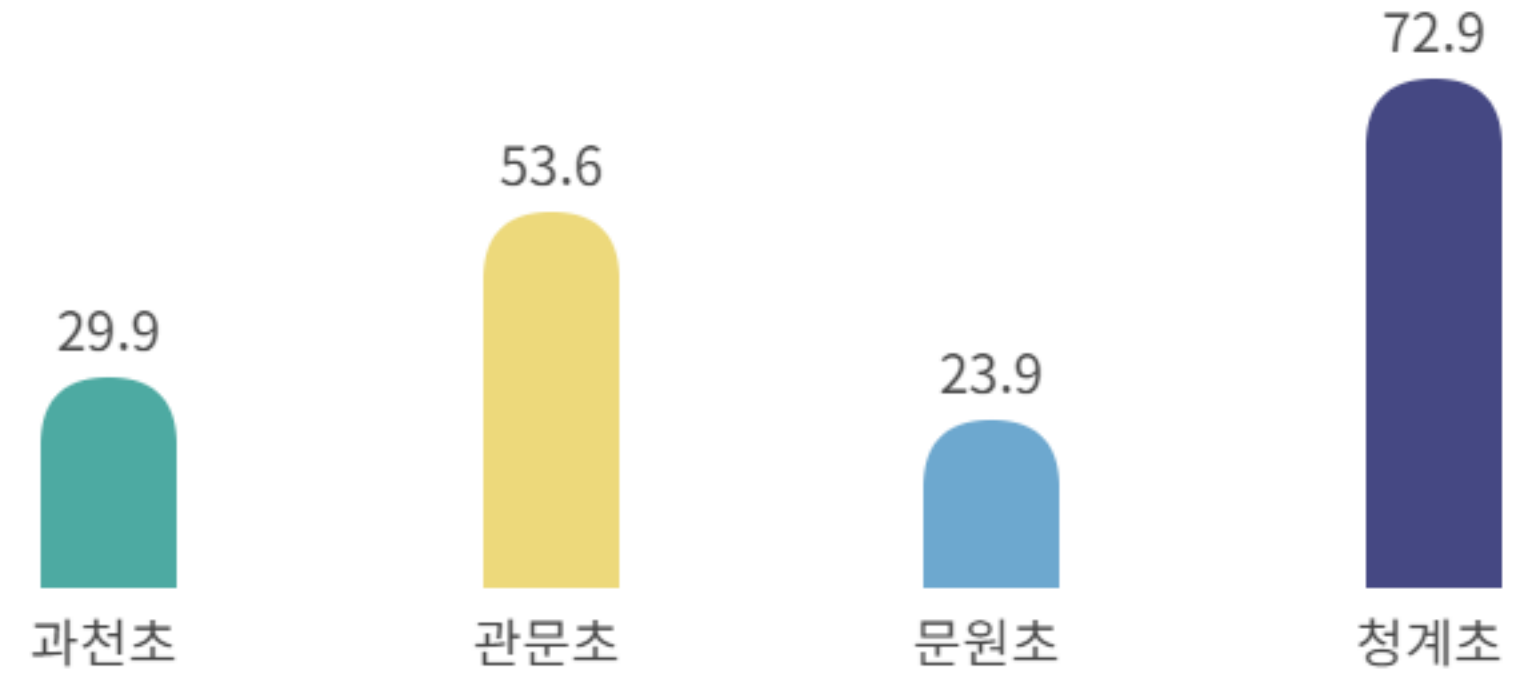


1인당 대출자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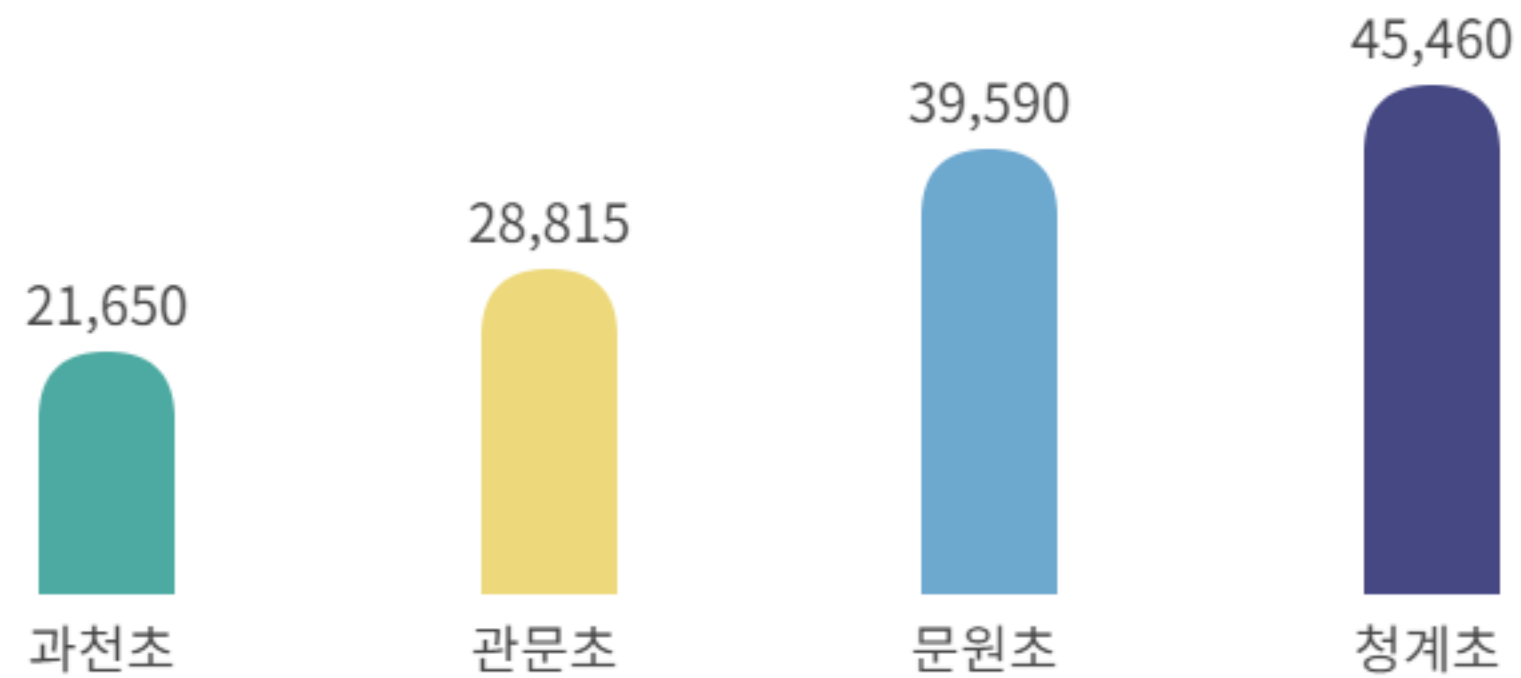
학교별 1인당 장서수

단위: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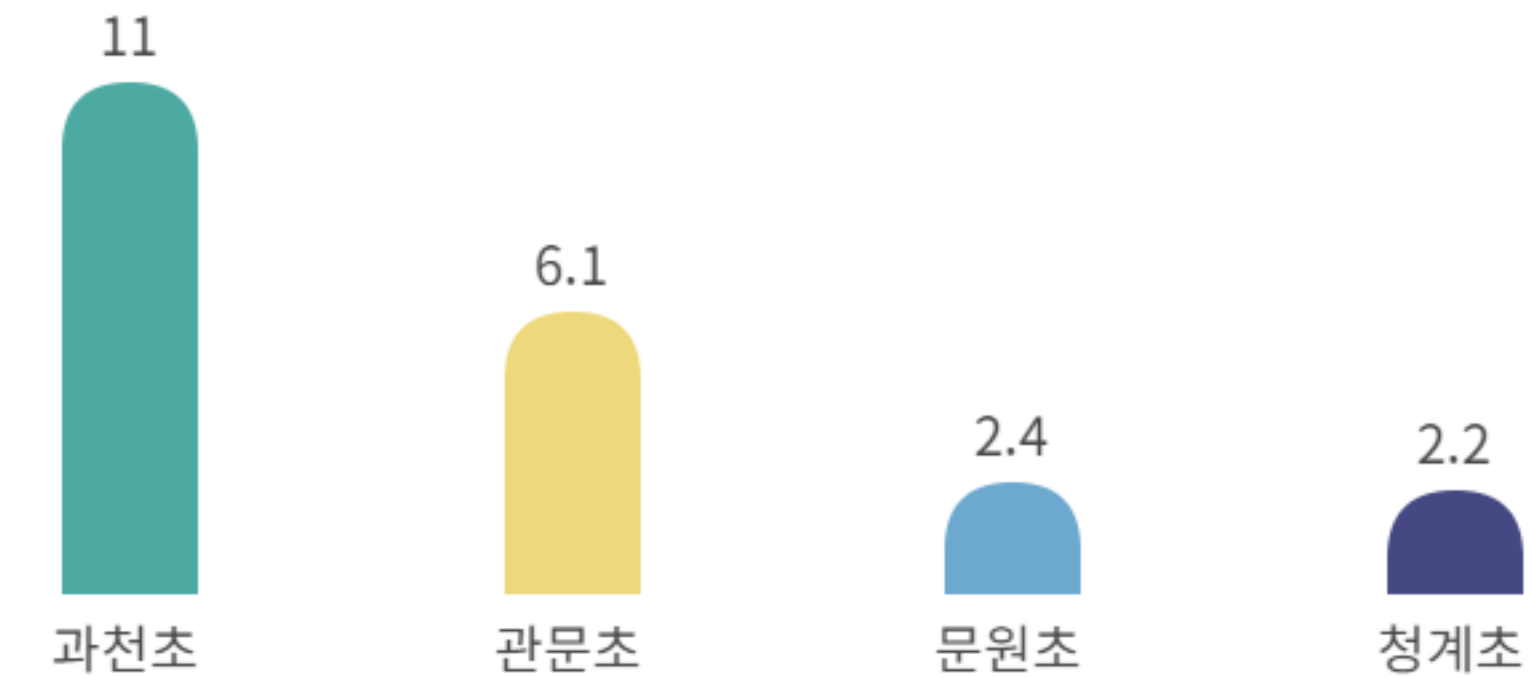
학교별 도서관 장서수

단위: 권



학교별 1인당 대출자료수

단위: 권



중학교 현황

출처: 학교알리미 (2021. 5월기준)



과천중학교

25.9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7개

학생수: 699명

15.2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46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학급수	9	8	8	2
학생수	247	221	222	9
학급당 학생수	27.4	27.6	27.8	4.5

과천문원중학교

30.3명
학급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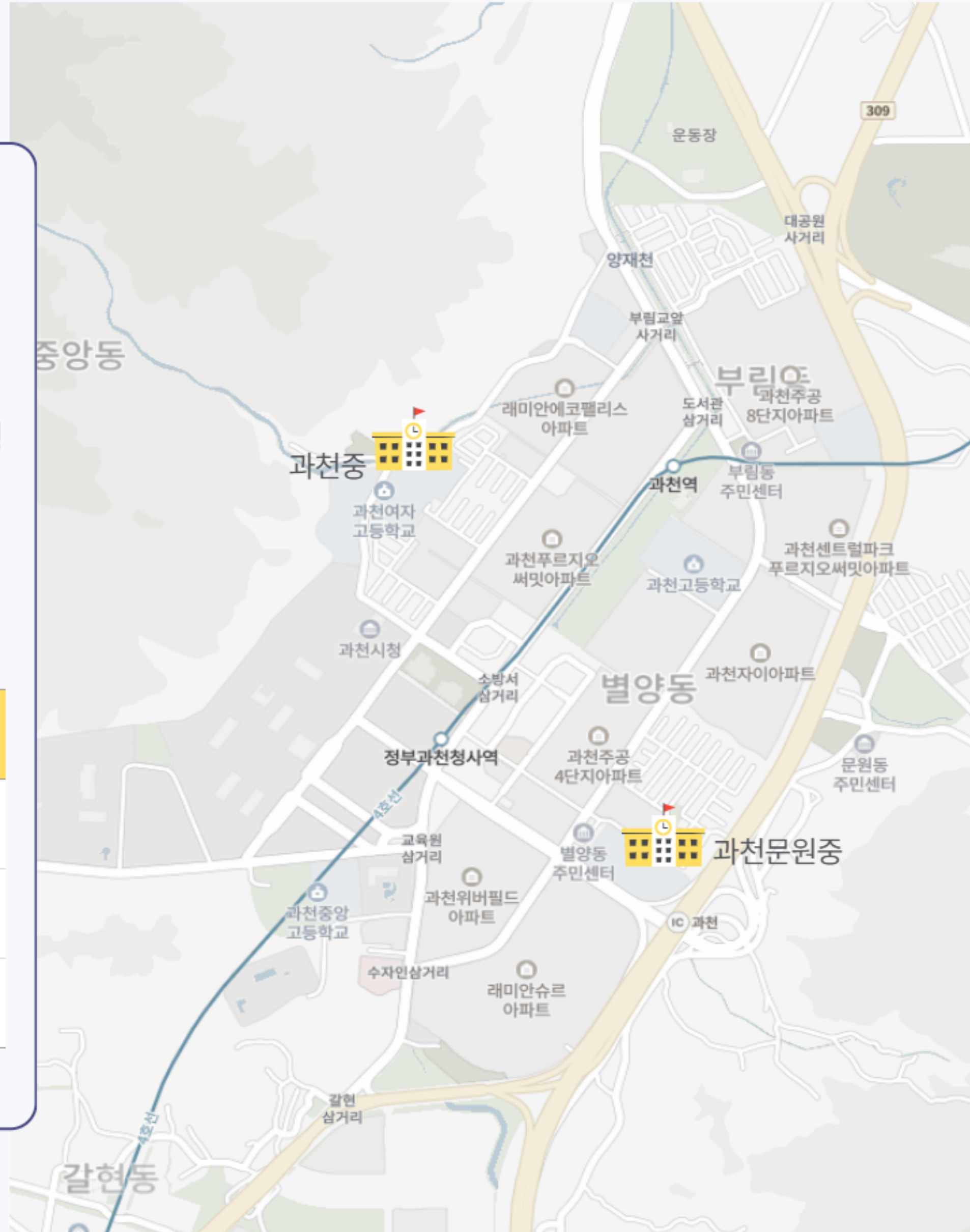
학급수: 37개

학생수: 1,120명

17.5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64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학급수	12	12	12	1
학생수	375	373	365	7
학급당 학생수	31.3	31.1	30.4	7



지도출처: 네이버

통학 현황

대상: 15세 ~ 19세, 편도기준

출처: 2021 과천시 사회조사

과천시 청소년 통학지역 및 소요시간

1위 과천시



2위 서울시



3위 경기도 타 시/군



4위 인천시



5위 기타



통학 수단별 현황

1위
걸어서
46.5%



평균
12.8분
소요

2위
버스
27.2%



평균
33.2분
소요

3위
지하철, 전철
21.6%



평균
70.9분
소요

4위
자전거
21.6%



평균
20분
소요

고등학교 현황

출처: 학교알리미 (2021. 5월기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22.4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30개

학생수: 672명

10.5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64명

과천고등학교

23.1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5개

학생수: 578명

12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48명

과천여자고등학교

19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0개

학생수: 379명

8.6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44명

과천중앙고등학교

20.7명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24개

학생수: 497명

10.8명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수: 46명



지도출처: 네이버

청소년 경제교육, 실생활에 힘이 되도록 고쳐보자

과천시민 김경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전세계 질서를 바뀌어 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경제 환경도 크게 바뀌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 한국경제 기반도 점차 바뀐다는 의미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경제 또는 금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초중고 교육현장의 학습 내용 중에는 일방적인 설명도 상당수 보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들

초중고 교육현장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학생들은 모바일로 인터넷상에서 진로 진학 관련 내용을 검색(잘못된 내용도 많다)하고, 게임을 하고,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팔고,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고, 주거 자산가치를 비교하곤 한다. 반면, 교육부 방침은 경제학 개념을 중심으로 추상적인 내용을 주로 학습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서는 탄소중립,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경제를 논리적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경제는 사실과 원리에 충실한 과학과는 다르다. 경제는 삶의 과정과 역사에 나타나는 드라마 같이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고, 경제학적 논리 개념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써 개발된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적 개념과 논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 교과과정 상의 경제 교육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이해가 어렵고, 흥미가 없거나 시험을 위한 기계적 학습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부모 입장에서도 돈과 자산관리, 진학, 취업 등에 대한 현실적 지식이 절실한 상황인데, 교육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교육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다.

선진국 경제교육

지난 2012년 G20 국제회의에서는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력 향상이 매우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OECD(선진국 경제협력 기구)에 국제적으로 경제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INFE)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조언을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실생활에서 경제적 선택에 관한 내용, 개인자산 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경제교육의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경제학적 개념에 대한 교육도 청소년이 쉽게 인지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실생활로부터 점차 인식을 높여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진로 진학 선택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기술 발전이나 창업, 기업가 정신, 기업 역할, 나아가 탄소중립, 경제 불평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교육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같은 선진국 흐름을 우리도 시급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 전문가들은 옛 교과서의 고전적 개념에만 치중하는 경제 교육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입장마저 표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인터넷 정보에 민감하고, 자산 격차, 주식과 코인 투자, 상속 증여와 같은 이슈에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방향

정부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경제교육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매년 금융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한국은행, 공기업,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과과정 운영을 통하여 경제교육 시간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천시 등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반인과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당면한 문제는 ‘경제교육의 새로운 내용과 실천 방법론을 어떻게 창안할까’ 이다.

중앙정부, 교육부가 기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장시간이 소요된다. 즉시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해법은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진로체험 지원센터, 창업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운용 중이고, 교육청과 자유 학년제, 진로 연계 학기 운용 등에 협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학습제도를 통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공동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 일반 공무원, 학생들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매력을 느끼는 새로운 교육내용을 어떻게 누가 작성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천시가 지자체 중에서 선두에 나서, 경제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유도해, 새로운 실용적 경제교육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기를 기대해 본다.